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상황과 경제적 복지감*

The Economical Situation and Economical Well-being
among Elderly Women Living in Islands

목포가톨릭대학교
장의교수 노채영**

Mokpo Catholic University
lecture professor : Ro, Chae Y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관련연구의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참고문헌 |

〈Abstract〉

In an attempt to illuminate the lives of elderly women,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economical situation and economical well-being felt by the elderly women dwelling in the southwestern coastal islands of Korea. In this article, we have attempted to conduct a consolidated research that incorporates both qual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ed areas included 6 islands.

Here are the main results. : 1) The elderly women living in the islands were enduring various forms of excessive labor, and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se women didn't receive adequate amount of compensation. There should be more considerations made by the locals and proper restrictions should be brought out in order to prevent these women from conducting excessive and hazardous tasks. 2) Due to unpropitious economical situations, the majority of the elderly women living in these islands were incapable of saving money. There should be a plan devised to empower the economical capabilities of these elderly women that will elicit economical effects.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수행된 “도서지역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임(KRF-2002-072-BS1016)

** 주저자 : 노채영 (rochae77@hanmail.net)

3) The degree of economical well-being that these elderly women felt was very low, both in the absolute level of economical satisfactions, as well as the relative level of economical satisfactions compared to the people living in the cities. There should be an incorporated effort conducted by the elderly women themselves, the local society, and the relevant offices to increase the level of economical well-being that are felt by these elderly women.

Key Words : 도서지역 여성노인(elderly women living in islands), 경제상황(economical situation), 경제적 복지감(economical well-being)

I. 서론

도서지역은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이라는 대표적인 지역 특성(신순호, 2001) 때문에 연구 대상지로써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는 섬의 가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과 기상조건 등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어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지역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섬에서 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자료(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5년 동안 총인구는 3.4% 증가한 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27.7%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부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5.4%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읍면부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읍면부의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연장, 저출산 및 젊은층의 도시부이로의 전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과 도서지역의 전

반적 위기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읍면부에는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독거노인 가구는 일반적인 노인 가구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김영란 등(2005)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여성노인의 경제상황은, 질병에 대한 보호와 간호, 정서적인 지원과 같은 부양기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문제점과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거노인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독거노인의 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나 농촌 지역보다 더욱 취약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서지역 여성노인에 대한 기초 자료 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다룬 많은 연구에서 경제상황은 생활의 질을 인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생활은 긴장과 부담을 느끼게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최재석, 1976; 김동일 외, 1982; 정지웅·최병익, 1987; 최은숙·노자경, 1991 등)중의 한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생활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여성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상황은 인간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며, 경제가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읍지역과 비교하여 지역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여성노인을 둘러싼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경제적 복지감을 분석하기로 한다.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상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의 삶의 방식이나 특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흥미를 갖게 한다. 여기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생산 활동을 비롯한 경제상황에 관해서 살펴보고, 경제적 복지감 등을 분석하여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삶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의 고찰

도서지역 노인여성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성노인의 특성, 여성의 생산 활동, 경제상황 및 경제적 복지감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1. 여성노인의 특성

통계청(2002)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할 때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해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고 유배우자율은 낮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여성노인 인구 비율은 도시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촌지역 노인 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화는 계속되고 있고 독거노인 중에서 여성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단독가구 중에서 20.8%는 여성노인 단독가구이고,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중에서는 85.3%가 여성노인 단독가구이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하여 읍면부의 독거노인 비율이 도시부의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영란 등(2005)의 연구는 도서지역 여성노인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노년을 준비할만한 경제적 여유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또한 공적 부조나 경로우대연금에 의지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상당수에 이르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젊어서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노년기에는 자녀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기 때문에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여성노인들의 경우 자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평상시의 접촉이나 교류의 가능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 자녀들을 방문할 기회도 많지 않다고 하였다.

2. 생산 활동

도서지역 여성의 생산 활동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단적으로 그 일면을 보여준 연구는 최계원 등(198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흑산도에서의 발농사는 모두 여성들의 몫이다'라고 단정하였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밭이나

산으로 가는 것이 삶이라고 지적하였다. 농농사나 밭농사 등 땅을 일구는 일은 남성들이 조금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생산 활동을 주제로 삼은 연구(양순미, 1996)에서 여성의 역할과다는 다중(multiple)하고 과중(overload)함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역할다중'은 생산 활동 유형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의 개념이고, '역할과중'은 생산 활동 시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산 활동에 참여하느냐의 개념이며, '역할과다'는 역할이 과중함과 동시에 다중함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개념들을 앞의 최계원 등의 연구에 적용한다면 흑산도 여성들은 확실히 '역할과다'한 생산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경만의 연구(1991)에서는 청산도의 농경 작업은 여성과 남성의 분업이 정형화되어 있고, 여성 노동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밝히고 있다. 남성은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몇 가지 일에만 참여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신체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남성이 힘든 일을 맡는다는 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일들 이외의 일들에도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데 거의 그렇지 않다는 점은 어떤 필연성이나 이유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금후의 조사연구에서는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작업의 자연적 특성과 성적 적응성에 관한 구체적 검토, 남성과 여성의 분업에 대한 사회적 기제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수애(1990)는 도서지역에서 해양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술과 자본의 조건에 따라 한계상황에 접하기가 쉬우며 기후나 생태적인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위험부

담울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물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부분의 도서지역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토지와 바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특히 토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동의 결과에 대한 안정성이 해양자원 활용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해조류 양식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발작물을 돌보듯 잔손질이 필요하고 수확기에는 노동력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교적 수익성 높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러한 해산물의 채취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고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일도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토속신앙의 영향 등으로 여성들에게는 금기시 되었던 고기잡이에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바다 일 외에 농농사나 밭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섬의 경우 농업소득 이외에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로는 산지에서 약초나 약재를 채취해서 판매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채취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의 경우도 주로 여성들의 몫이 된다고 보았다.

3. 경제상황

김영성(1995)은 도서지역이 지리적인 격리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간과 재화의 수송비, 수송시간, 수송기회 등 접근성이 불리하며, 생활편의시설의 확산보급이 육지와 비교하여 지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지역은 급경사가 많고 연계망이 발달되지 않아 경지의 활용율이 낮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해양에서 획득되는 생산물이 한정되어 있

는 경우가 많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 지었다. 더욱이 도서지역은 기초생활단위 안에서 지역의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경제적 기반이 육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소규모 도서는 상대적 격리성이 더 크다고 보았으며, 지역주민의 이출현상이 진행되어 지역의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볼 때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비하여 열악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도서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인구감소 현상, 인구의 고령화, 소득원의 감소, 심각한 부채문제, 도서이탈현상 및 산업화 중시로 인한 농어촌 경시현상을 비롯한 국내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천에 따라 도시, 농촌, 도서지역의 구별 없이 가정생활은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생활에 기초한 경제적 복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영숙(1994)은 개인이나 가족의 근원적인 목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고 이러한 변화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에 여러 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그리 호의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소비생활과 소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및 경제적 복지수준의 실태와 변화를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울릉도와 한산도에 관한 연구(정영숙, 1993, 1994) 등이 있을 뿐 다른 도서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지역의 생활환경은 그 지역구성원의 사상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융해되어 그 지역에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어 하나의 양식으로 나타나며(정영숙, 1993), 그러한 생활양식은 경제상황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도서지역의 경제생활을 파악해 보는 일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생산 활동이 생활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은 소비를 전제로 한다면 경제상황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상황은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욕구충족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복지와 삶의 질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4. 경제적 복지감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가계의 안정도를 평가한 연구(김연정·김순미, 1991; 김경자, 1993 등), 객관적 경제복지와 주관적 경제복지와 관련된 연구(노자경·최은숙, 1991; 김민정, 1995 등), 경제상황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숙이, 1988; 임정빈·고보선, 1995 등) 등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복지감과 관련하여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는 거의 없다.

Andrews와 Withey(1976)는 경제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표준은 크게 절대적인 측면, 상대적인 측면, 변화에 대한 것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방법은 각각 다른 응답자가 스스로 정한 표준에 따르는 절대적

입장과 특정준거집단이라는 표준을 제공하는 상대적인 입장, 개별응답자들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만족을 측정하는 변화지향적 입장을 의미한다. 주관적 만족도는 크게 절대적 평가 및 상대적 평가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절대적 입장에서의 주관적 평가로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생활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상대적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한 상대적 생활수준, 미래의 상대적 생활수준 기대감, 다른 가구와 비교시 상대적 생활수준 등을 포함한다.

최은숙과 노자경(1991)의 연구에서는 생활의 질과 객관적 요인 및 주관적 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복지라는 개념에는 경제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의 기반이 되는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과 같은 객관적 요인들도 물론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소비생활에서 인지한 경제적 복지감이라는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생활만족도는 여러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숙이(1988)는 공급생활영역, 금융생활영역, 구매생활영역, 소비생활영역, 생산생활영역으로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재정만족도를 구분하고 있다. Lown·주인숙(1991)은 소득수준, 가계의 필수재 구입에 필요한 화폐에 대한 수준,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부채의 양, 저축수준, 미래 대비를 위한 화폐정도에 대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정혜정, 이동숙, 2000)를 보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며, 앓고 있는 질병 수가 적고, 경제상황이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황은 가족관계에도 영

향을 미쳐 경제상황이 양호한 여성 독거노인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더 높고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애정적인 결속, 앓고 있는 질병 수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애정적 결속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지역 여성이 스스로 느끼는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도서지역의 경제생활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감을 경제적 복지감 측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생산활동 실태는 어떠한가? 2)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상황 어떠한가? 3)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도서지역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미리 작성한 설문지를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면접식이나 자기기입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전남 완도군의 노화도, 넓도, 신안군의 흑산도, 하의도, 진도군의 가사도, 하조도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여성노인 115명이다. 또한 심층면접조사는 여성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우리나라 서·남해 도서지

역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구역상으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에 소속되어 있는 섬 중에서 일부 섬을 표본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한다할지라도 섬이라는 자연적 환경을 감안하여 조사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어느 정도 도서지역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섬인지도 고려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완도군의 노화도와 넓도, 진도군의 하조도와 가사도, 신안군의 흑산도와 하의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양적 연구를 위해 위의 지역을 2002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 동안 다섯 차례 방문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하여 1차와 2차 방문에서는 주로 현장 감각을 익힌다는 취지에서 지리적으로 목표에서 가까운 노화도와 먼 흑산도를 선정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각 지역의 6개 섬에 대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 약 열흘 동안 전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교수 1인과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그리고 조사방법론 과목을 수강한 학부 조사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앞서 이 팀들은 미리 연구진에서 만들어 놓은 조사지침을 토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2003년 3월부터 질적 연구 현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완도군 노화도와 진도군 가사도를 중심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현장으로서의 적합성은 무엇보다도 연구대상들의 호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면접과정에서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지역을 방문하고 머물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날씨와 거리로 인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때문에 조사현장으로 가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이 두 섬을 결정하는데도 배시시간이 현장에서의 면접시간을 확보하기에 적합한지까지 고려하였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분석하였으며, 설문 영역을 생산 활동, 경제상황, 경제적 복지감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및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도서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생활영역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고려하여 질적조사 면접내용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과 설문조사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양적연구의 분석은 SPSS PC+ 1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도서지역 여성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연구의 의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질적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조사 방법은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측보다는 서술과 설명을 구할 때, 행동을 야기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조작할 수 없거나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변수들이 쉽게 밝혀지지 않거나 연구를 위해 추출해내기에는 현상 속에 너무 깊이 묻혀 있을 때 실행된다(허미화 역, 1994). 따라서 이 연구방법은 도서지역 여성노인 연구처럼 기존의 연구가 부재하거나 부족하여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적절하게 제시할 근거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 적합하다. 또한 질적조사 방법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굳이 예견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 환경의 본질을 이해하여, 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과 성실하게 의사소통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IV. 결과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1>. 여성노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73명으로 63.5%, 70대 이상이 42명으로 36.5%이었는데 이는 실제 전남지역의 전체 여성노인의 연령별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도서지역이 약간 고령의 추세에 있다. 2000년 현재 전남지역 여성노인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60대가 130,342명으로 54.7%, 70대가 78,940명으로 33.1%, 80대 이상이 29,060명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2). 학력을 보면 무학이 69명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졸업은 47명으로 40.9%, 중학교 졸업은 단 4명으로 3.5%에 그쳐 학력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남편의 학력은 무학이 17.4%로 여성노인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고, 초등졸업자가 43.7%, 중졸 22.2%, 고졸 15.1%, 전문대졸 이상 1.6%로 여성노인의 학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이 54명으로 47.0%,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61명으로 5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제 전남지역 전체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0년 현재 전남지역 전체 여성노인 중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114,301명으로 48.0%,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124,041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2). 가족구성원을 보면 혼자만 생활을 하는 독거여성노인이 52명으로 45.2%를 차지하고 가족원과 함께 사는 비독거여성노인은 63명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비독거노인 중 기혼자녀와 생활하는 경우는 20.3%

였다. 즉 전체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46.0%는 단독가구, 43.0%는 핵가족, 11.0%는 확대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보면 59년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0%, 60년 이상이 72.9%로 대다수의 여성노인들이 도서지역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도서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여성노인 중 51.3%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기독교가 22.6%로 가장 많았고, 불교 13.9%, 천주교 10.4%, 기타 4.3%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생산 활동

1) 생산 활동

도서지역 여성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은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빈도	%
연령	60대	73	63.5
	70대 이상	42	36.5
학력	무학	63	54.8
	초등졸	47	40.9
	중졸 이상	5	4.4
배우자유무	유	54	47.0
	무	61	53.0
독거여부	예	52	45.2
	아니오	63	54.8
도서지역 거주기간	50년이하	18	16.2
	51-60년	12	10.8
	61-70년	52	46.8
	71-80년	27	24.3
	81년 이상	2	1.8
종교	기독교	26	22.6
	천주교	12	10.4
	불교	16	13.9
	기타	5	4.3
	없음	56	48.7
합계		115	100.0

38.3%인데 비해 경제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61.7%로 도서지역 여성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내용을 보면 농업이 30.4%로 가장 많고, 어업 10.4%, 상업 7.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라고 응답한 14.0%의 노인들은 하는 일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이것저것 품삯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도서지역의 경우는 가능하면 토지자원과 해양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해 가기 때문에 이용할 자원이 있는 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 2>의 응답은 주로 참여하는 생업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직업

구분	빈도	%
직업 없음	44	38.3
농업	35	30.4
어업	12	10.4
상업	8	7.0
기타	16	14

도서지역 여성노인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노인이 되어서도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심심하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는 ‘일생동안 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일하게 된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이 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0년 전에는 돌김이나 돌미역 따러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제사 때 쓸려고 굴을 따러 다니는 정도고 주로 농사를 짓지. 밭 600평에 마늘, 시금치, 고추를 심어서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벌지. 소도 키웠는데 지금은 그만두었어.” (67세, 독거노인)

2) 생산 활동의 어려움

어업에 종사하던 농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생산 활동의 현장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컸다. 생산 활동은 대체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산 활동의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상호연계 속에서 일을 추진하면서도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지나치게 많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할 때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성의 일당은 3만원, 남성의 일당은 5만원이 일반적이다.

“밭 매도 3만원, 바닷가에 툇 일해도 3만원. 남자들은 5만원 그래. 일 안하면 굶는데. 옛날에는 김 양식 하는데 물을 바가지로 길러 통에다 담아 놓으면 밤새 놓으면 콩깍 열어. 추워 손은 오그라 들고 덜덜 떨면서 일했어. 그때는 옷도 해 입을 줄도 몰랐고...” (60세, 어업)

“하루 종일 밤까지 일하면 3만원 받아. 이전에는 2만5천원 받았는데. 이전에 하던 일이라 일손 없다고 봐주라고 해서 할 수없이 하제, 이렇게 일하고 나면 힘들어 죽어 밤이면...온몸에 다 파스여.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한달에 30만원 좀 못 받아. 그 돈으로 밥해 먹고 옷도 사고,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 내야하니까 부족하지. 그래서 돈도 벌 겸 일하지, 노는 것보단 낫지.” (79세, 기초생활수급자)

결국,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지역의 여성노인들에게 돌아온 노동의 대가였다. 생산 활동 과정에서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고 어떻게 힘든지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생을 도서지역의 여성으로서 생활하

면서 남은 것은 결국 건강상의 어려움인 경우가 많았다. 갯벌에서의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손가락을 갯벌에 넣어 직접 채취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퇴행성질환이나 관절염을 앓는 여성이 많았고, 양식장에서 톳, 미역, 다시마 등을 끌어올리는 작업 등 과중한 작업이 연중 계속되므로 다중하고 과중한 노동 때문에 만성요통을 앓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뼈에 먹물 앉게 이렇게 일하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안 아픈 데가 없어. 일하고 사는 사람은 안 아플 수가 없지. 먹고 살라고 고생하고 일하는 것이지.” (73세, 어업)

이처럼 바다를 생활의 터전 삼아 생활하고 있는 도서지역 여성들의 고달픈 일상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김, 전복, 미역, 다시마, 톳... 평생 힘들어서 죽어. 한 겨울에도 하루도 쉴 틈이 없어. 지금도 새벽 네 시에도 일어나고, 다섯 시에도 일어나고 늦으면 6시. 7시 못 되서 출근하지. 바다로 일하러 가는 시간이 8시. 점심은 싸갖고 나가. 해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대로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고 잠잠해지면 들어오지.” (70세, 어업)

도서지역에 살면서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생활이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일을 공동으로 하거나 분담하기도 하는 등의 보다 여유롭게 보내는 듯하였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하면서 가사노동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하고 다중한 노동량을 견뎌내야만 했다. 특히 가족의 협조를 통해 노동지원이 가능한 경우의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의 경우 노동으로 인한 수면부족, 만성피로, 나아가 질병 발병 시 치료기회의 제한 등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심신을 해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상황

1) 연평균 가계소득

연평균 가계소득과 분포는 <표 3>에서 보면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5.5%를 차지하고 있고 1000만원 미만까지 합하면 약 87%에 달해 가계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115명 중에서 98명만이 실제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들이 응답한 연평균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경우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60대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직업 없음을 포함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5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어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거여부에 따라서는 독거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00만원 미만의 분포가 높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노인들은 자신 또는 가족의 소득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활동 자체가 임금노동과는 달리 소득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맹인 경우가 많고 연로한 탓으로 자신들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소득이나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돈 나오는 것... 돈 계산도 안하고 우체부보고 농협통장 한번 봐주라고 부탁하면 보여주고 하제. 나는 얼마 나오는지도 몰라. 우리 아들이 돈 나오는 것 있을 거라고 하되만, 노인수당인가 그거 준다고 하던데 나는 얼마 나오는지 잘 몰라.” (77세, 독거노인)

<표 3> 연령, 직업, 독거여부별 연평균 가계소득

단위: 빈도(%)

구분		500만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전체	χ^2
연령	60대	39(63.9)	10(16.4)	12(19.7)	61(100.0)	11.712**
	70대 이상	35(94.6)	1(2.7)	1(2.7)	37(100.0)	
직업	직업 없음	36(97.3)	1(2.7)	-	37(100.0)	43.193***
	농업	27(84.4)	3(9.4)	2(6.3)	32(100.0)	
	어업	5(29.4)	3(17.6)	9(52.9)	17(100.0)	
	기타	6(50.0)	4(33.3)	2(16.7)	12(100.0)	
독거여부	예	41(91.1)	4(8.9)	-	45(100.0)	14.124***
	아니오	33(62.3)	7(13.2)	13(24.5)	53(100.0)	
전체		74(75.5)	11(11.2)	13(13.3)	98(100.0)	

p<.01. *p<.001

“공공요금 얼마씩 나오는지 잘 몰라, 내가 글을 알아야 알제. 종이만 갖다놓고 가면 나는 주어도 방에다 들여놓지. 그냥 자동으로 납부해버려. 전화세 내로 가니까 자동으로 되어있어, 그래서 자동으로 된지 알제” (79세, 기초생활수급자)

2) 저축상황

도시지역의 여성노인가구에서 실제로 저축

을 하고 있는 경우는 24.8%정도의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직업, 연평균가계소득, 독거여부별 저축 상황에 대한 결과는 <표 4>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집단에서 보다 60대에서 저축을 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표 4> 연령, 직업, 연평균 가계소득, 독거여부별 저축상황

단위: 빈도(%)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연령	60대	23(32.4)	48(67.6)	71(100.0)	5.944**
	70대 이상	5(11.9)	37(88.1)	42(100.0)	
직업	없음	8(18.6)	35(81.4)	43(100.0)	4.456
	농업	9(26.5)	25(73.5)	34(100.0)	
	어업	8(42.1)	11(57.9)	19(100.0)	
	기타	3(17.6)	14(82.4)	17(100.0)	
연평균 가계소득	500만원 미만	14(19.4)	58(80.6)	72(100.0)	10.422**
	500만원-1000만원 미만	7(63.6)	4(36.4)	11(100.0)	
	1000만원 이상	5(38.5)	8(61.5)	13(100.0)	
독거여부	예	12(24.0)	38(76.0)	50(100.0)	.029
	아니오	16(25.4)	47(74.6)	63(100.0)	
전체		28(24.8)	85(75.2)	113(100.0)	

**p<.01.

다. 연평균 가계소득별로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을 5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500만원-1000만원 미만과 10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 독거여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저축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서지역 여성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저축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미래 보장적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정신적으로 혹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취약하긴 하지만 노후생활의 경제대책을 세우고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막내딸하고 땃하나 넣고 있어. 75살 되면 탈 수 있다는데. 인자 6년차냐, 7년차냐? 내가 그전에 죽으면 그놈 찾아서 장례 때 쓰라고 그랬어.

내가 그때까지 살면 그놈을 찾아갖고 내가 살고... 남편한테는 일체 말 안했어. 매월 30만원씩 들어 가는데 석 달에 30만원 내가 보내고 나머지는 딸이 넣어 주고 있어. 또 내 앞으로 여기서 우체국 통장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 (60세, 어업)

3) 용자경험 여부

경제적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상환 능력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빛이나 용자를 받아 현재를 유지해 가는 것도 금전관리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용자나 빛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용자나 빛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4.8%의 경우보다 높았다. 집단별 분포의 차이를 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직업, 월평균소득, 독거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 어업인 경우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용자나 빛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1000만원 이상 집단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용자나 빛이 있다는 응답

<표 5> 연령, 직업, 연평균 가계소득, 독거여부별 용자경험여부

단위: 빈도(%)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연령	60대	38(52.1)	35(47.9)	73(100.0)	2.086
	70대 이상	16(38.1)	26(61.9)	42(100.0)	
직업	직업 없음	16(36.4)	28(63.6)	44(100.0)	14.195**
	농업	12(34.3)	23(65.7)	35(100.0)	
	어업	15(78.9)	4(21.1)	19(100.0)	
	기타	11(64.7)	6(35.3)	17(100.0)	
연평균 가계소득	500만원 미만	33(44.6)	41(55.4)	74(100.0)	4.686*
	500만원-1000만원 미만	5(45.5)	6(54.5)	11(100.0)	
	1000만원 이상	10(76.9)	3(23.1)	13(100.0)	
독거여부	예	18(34.6)	34(65.4)	52(100.0)	5.804**
	아니오	36(57.1)	27(42.9)	63(100.0)	
전체		54(47.0)	61(53.0)	115(100.0)	

*p<.05. **p<.01

률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업에 있어서 양식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대형 농기계의 구입과정에서 빛이나 용자를 얻어 쓰는 것으로 심층면접의 결과 밝혀졌다. 남편의 노름 벽, 혹은 부모가 남겨놓은 빚을 떠안아 이를 갚아내기 위해 어려운 경제생활을 감수해 낸 여성들도 드물지 않았다. 도서지역 여성노인은 부채의 상황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다음의 회고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새벽부터 벼 타작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불켜 놓고 일하고 그런 생활을 했지. 그래서 빚도 좀 갚고. 한숨 돌리면 또 겨울이 되면 남편은 또 노름을 하여 빚을 지고 또 갚고...벼나 보리나 쳐서 농협에서 돈 찾아다가 갖고 오면 그때 장사꾼들이 외상장부를 갖고 와. 내가 그런 세상을 살았어. 이러다가는 도저히 여기서 못 벗어 나갈 것 같아서 내가 밭 벗고 나섰지.” (60세, 반농반어)

4) 개인용돈

개인의 용돈과 관련된 내용은 <표 6>에 나

타난 것과 같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용비, 의류구입비, 유흥비 등의 용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돈이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66.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돈이 없다고 응답한 33.9%도 있었다. 집단별로는 연령과 직업에서는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인 반면 연령군 가계소득과 독거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용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0대 이상에서의 52.4%보다 60대의 74.0%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는 직업이 없거나(56.8%) 농업인 경우(62.9%)가 어업인 경우(89.5%)보다 용돈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아 집단간에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용돈과 관련하여서는 명절에 여성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기 마련이지만 가족들이 육지의 타 지역에서 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다. 또 도서지역은 기상의 변화에 따라 기상주의보가 내려지면 배가 출항하지 않아서 못 오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에게 받는 경제적 지원의 규

<표 6> 연령, 직업, 연령군 가계소득, 독거여부별 개인용돈 유무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연령	60대	54(74.0)	19(26.0)	73(100.0)	5.546**
	70대 이상	22(52.4)	20(47.6)	42(100.0)	
직업	직업 없음	25(56.8)	19(43.2)	44(100.0)	6.640*
	농업	22(62.9)	13(37.1)	35(100.0)	
	어업	17(89.5)	2(10.5)	19(100.0)	
	기타	12(70.6)	5(29.4)	17(100.0)	
연평균 가계소득	500만원 미만	47(63.5)	27(36.5)	74(100.0)	1.493
	500만원-1000만원 미만	9(81.8)	2(18.2)	11(100.0)	
	1000만원 이상	9(69.2)	4(30.8)	13(100.0)	
독거 여부	예	35(67.3)	17(32.7)	52(100.0)	.063
	아니오	41(65.1)	22(34.9)	63(100.0)	
전체		76(66.1)	39(33.9)	115(100.0)	

*p<.05. **p<.01

모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다. 약값, 세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정기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난방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비용을 합해보면 개별용돈은 생각할 여력이 없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도서지역 노인여성의 경제적 복지감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도시의 경제생활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감을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을 주어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표 7>. 먼저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2.10이었다. 도시의 경제생활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감은 1.43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경제적 복지감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반적인 점수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도시의 경제생활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감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만으로도 도서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복지감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지역 여성노인들의 경제생활수준 만족감이 낮은 이유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어려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교통문제 등과 맞물려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지역 사람의 생활과 비교할 때의 경제생활 수준의 상대적 만족감에 대하여는 보통이거나 낮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만족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의 소비생활 측면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반면, 자녀들이 바다를 일터로 해서 생활하기를 바라지 않는 측면, 자신들이 생산 활동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반영하면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서지역 여성노인은 상대적인 경제생활 만족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경제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상대적 생활수준 만족감에 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 보다 자신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여성노인들은 도시의 주민들과 자신들을 비교할 때 상대적 빈곤의식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고깃배 하다가 망한 후로 빚 갚으려고 논밭 모두 팔아버려서 지금은 밭 50평 정도만 남았어. 밭에서 고추랑 마늘이랑 심어 먹는데 빚은 다 갚았지만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소득이랄 것도 없어서 사는 것이 형편없어 만족하지 못해” (76세, 독거노인)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벌어. 자식들도 좀

<표 7>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적 복지감 기술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복지감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115	1	5	2.10	.96
	도시와 비교한 경제생활 만족감	115	1	4	1.43	.72

도와주니까 여기서 혼자 살기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야. 그렇지만 도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주 못하는 편이지.”(67세, 독거노인)

“자녀들에게 반드시 고향을 지켜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어. 섬에서 바다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바랄 수 없어. 도시생활과 비교가 안 되지.”(60세, 어업)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60세 이상 여성노인들의 경제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여성노인들의 경제상황과 경제적 복지감을 조사한 결과이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지역의 노인여성들은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때로는 남성들이 이상의 과중하고 다중한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노동의 대가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지역에서는 고령일수록 자본투자적 어업과 같은 생산 활동은 어렵고 점차 농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에서 농업은 자가소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금 소득을 올리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여성노인 가구는 노후를 위해 준비된 저축이나 연금소득이 없거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서지역에서는 여성노인의 빈곤화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은 경제력을 확보 외에도 건강과 정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통제가 필요하며, 소일의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경제적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 여성노인들은 저축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었으며, 극히 일부뿐이지만 자녀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 또한 가족의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가 여성의 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시, 현재, 혹은 미래에 대비하여 경제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생산자와 지역이나 도시의 소비자와 직거래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세력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복지감에 대하여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과 도시의 경제생활과 비교한 상대적 만족감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노인의 경제적 복지감이 낮은 것은 그 동안 도서지역의 여성노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생산 활동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원이 풍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도서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경제적 복지감을 높이기 위한 도서지역 여성노인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도서지역 여성노인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 노인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생활 영역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구명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 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07-118.
- 2)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 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동일, 심재웅, 유철인(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김숙이(1988). 도시가계의 경제적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연정, 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6) 김영란, 노채영, 박분희, 박정희, 박진영, 이수애, 전호문(2005). 도서지역 여성의 삶. 파주: 양서원.
- 7) 김영성(1988).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 옹진군 북도지역 주민의 주·객관적 복리수준. 상명대학교논문집 21, 267-308.
- 8)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 및 관련변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_____, 최은숙(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2, 63-76.
- 10) 신순호(2001). 도서지역의 주민과 사회: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경인문화사.
- 11) 양순미(1996). 농촌여성의 생산활동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이수애(1990). 신안지역의 경제생활과 가족. 도서문화 7, 137-164.
- 13) 임정빈, 고보선(1995). 도시 신흥가계의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14) 조경만(1991). 청산도의 농업환경과 문화적 적응에 관한 일고찰 -부흥리 일대 수도작의 전통적 방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 8, 85-126.
- 15) 정영숙(1993). 도서지역과 육지의 소비자 출구조와 결정요인 -울릉도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4(1), 23-38.
- 16) (1994). 도서지역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생활의 질 만족도. 소비자학연구 5(1), 57-69.
- 17) 정지웅, 최병익(1987). 농촌지역간의 복지 수준 측정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7(1,2), 75-84.
- 18) 정혜정, 이동숙(2000). 부부단독가구 노인과 자녀동거 가구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변인 연구: 전북지역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67-91.
- 19) 최계원, 주인택, 서인석, 김행미(1988). 흑산도의 산업기술. 도서문화 6, 187-232.
- 20) 최은숙,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변수 연구. 소비자학연구 2(1), 13-35.
- 21) 최재석(1978).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22)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 23) 허미화 역(1994).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24) Lown, J. M., 주인숙(1991). 신용사용과 경제적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79-186.
- 25) Andrews, Frank M & Withey, Stephen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